

다닐리두 ‘서울 신데렐라’

타이브레이크 점전 끝 日 스기야마 꺾고 우승

한솔오픈테니스

남성 못지 않은 파워와 신체조건을 갖춘 그리스의 엘레니 다닐리두(세계랭킹 58위)가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한솔코리아오픈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다닐리두는 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벌어진 단식 결승전에서 3시간 가까운 혈전 끝에 일본의 자존심 스기야마 아이(27위)를 2-1(6-3 2-6 7-6(7-

3))로 제치고 지난 2004년 1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ASB 클래식 우승 이후 2년 9개월 만에 투어 대회 정상에 올랐다.

8강에서 베라 즈보나레바(28위·러시아), 4강에서 3번 시드의 마리온 바틀리(24위·프랑스) 등 상위 랭커를 잇달아 격파하고 결승까지 오른 다닐리두는 여세를 몰아 스기야마까지 꺾으며 통산 4번째 투어 대회 우승 컵을 안았다.

우승상금은 2만2천900달러, 투어 대회 우승 포인트는 95점이다.

톱시드 마르티나 히گی스(8위·스위스), 2

번 시드 마리아 키리렌코(29위·러시아), 바틀리가 차례로 떨어져 개인 통산 7번째 투어 대회 단식 우승에 한 발짝 다가섰던 스기야마는 특유의 끈질긴 플레이로 풀세트 타이브레이크 점전을 이끌었으나 다닐리두의 파워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2004년 초대 대회에서 마리아 샤라포바(3위·러시아), 지난해 ‘제2의 샤라포바’ 니콜 바이디소바(10위·체코)를 우승자로 배출한 한솔오픈은 올해 다닐리두를 신데렐라로 탄생시키며 1주일간 열전의 막을 내렸다.

“승장은 크로마티 이후 최고 용병”

다키하나 요미우리 구단주 평가

흔린(40개)과 타율(0.319), 타점(104개) 등 센트럴리그 공격 전방에서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간판으로 나서며 2002년 마쓰이 히데키(뉴욕 양키스) 이후 팀 내 타격 3관왕에 도전 중인 이승엽(30)이 구단 수뇌부로부터 워런 크로마티 이후 최고 외국인 타자로 평가 받았다.

다키하나 다쿠오 요미우리 구단주는 1일 그룹 계열 ‘스포츠포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 그동안 요미우리에서 성공한 외국인 선수를 꼽는다면 타자 중에서는 크로마티와 그 다음으로 이승엽이다. 투수 중에서는 갈베스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이승엽을 역대 최고 용병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했다.

‘스포츠포지’와 요미우리의 올 시즌 성적 및 내년 전망을 놓고 릴레이 인터뷰 중인 다키하나 구단주는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 선수 영입이 실패에 그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다”

면서 다음과 같이 답했다. 다키하나 구단주는 “요미우리의 구단 방침은 일본내 다른 구단에서 뛰었던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고 성공할 확률도 높다고 본다. 투수 제외 파워와 이능성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조 달론의 실패 사례를 덧붙이며 “미국에서 직접 뽑아오는 경우도 있긴 하나 달론의 경우처럼 그가 요통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등 (구체적인 정보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며 일본에서 검증된 선수가 아닌 외국인 선수를 요미우리로 데려오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내놓았다.

다키하나 구단주는 “시즌 중 데려온 조지 아리아스의 실패 사례는 눈으로 치더라도 (팀 성적을 위해) 미국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거물 용병을 잡아올 수도 있을 테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 시행 중인 용병 정책을 내년에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결국 역대 외국인 타자 중 두 번째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승엽을 잔류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독일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귀국한 포항 스틸러스 이동국이 1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라이언 킹’ 이동국 귀국... 이달말 복귀

부상으로 6개월 간 독일에서 재활해온 ‘라이언 킹’ 이동국(27.포항 스틸러스)이 귀국, 그라운드 복귀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4월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재활해온 이동국은 1일 오후 부인 이수진 씨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동국

은 지난 4월 5일 인천과 K-리그 홈경기에서 오른쪽 무릎십자인대가 파열돼 같은 달 12일 독일로 출국, 2006 독일 월드컵 본선 출전 꿈을 접은 채 프랑크푸르트에서 수술을 받고 스포츠재활전문 의료기관 스포렉에서 몸을 만들어 왔다.

이동국은 입국 후 인천국제공항 2층 KT프라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직 부상 이전 최고의 몸 상태는 아니지만 재활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무리하지는 않을 테지만 빠르면 이달 말쯤이면 그라운드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 구단에서는 3일 포항전용 구장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 삼성 하우젠 K-리그 홈경기 하프타임 때 이동국을 팬들에게 인사시킬 계획이다.

이동국은 “1인 3역을 해준 아내를 비롯한 포항 구단, 선수배 등 재활 훈련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그라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라운드 복귀의지를 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다닐리두의 백핸드 슬라이스

1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2006 한솔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 결승에서 스기야마 아이-엘레니 다닐리두의 경기에서 다닐리두가 백핸드 슬라이스를 구사하고 있다.

첼시 연승행진 마감

아스톤 빌라와 1-1 무승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부자구단’ 첼시의 연승행진이 아쉽게 ‘8’에서 마감되고 말았다.

첼시는 1일(한국시간) 새벽 홈구장인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펼쳐진 리그 7차전 아스톤 빌라와 홈 경기에서 경기 시작 3분 만에 디디에 드로그바의 선제골이 터졌지만 전반 종료 직전 아스톤 빌라의 가브리엘 아그나라의 헤딩 동점골이 터지면서 결국 1-1로 비겼다.

이로써 첼시는 지난 8월 27일 블랙번전 승리(2-0승)를 포함해 프리미어리그 4경기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경기 등 총 6연승을 거두며 승승장구했지만 아스톤 빌라에 발목을 잡히면서 연승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또 아스날 사령탑 취임 10주년을 맞아 아르센 Wenger 감독은 이날 참전 어슬레틱과 원정경기에서 로빈 반 페르시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뜻깊은 2-1 승리를 맞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홍만, 맨너에 연장 판정패

K-1 월드그랑프리 8강 실패

‘테크노 콜리엇’ 최홍만(26)이 입식 타격 대회의 강호 제롬 르 맨너(34·프랑스)에 아쉽게 패해 K-1 월드그랑프리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최홍만은 30일 일본 오사카 오사카조(城)홀에서 열린 ‘K-1 월드그랑프리 개막전’ 16강 토너먼트에서 맨너와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연장전에서 0-3으로 판정패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8강에 진출했던 최홍만은 올해 16강에 머무르는 동시에 지난해 11월 K-1월드GP 8강전에서 레이 본야스키(네덜란드)에게 진 뒤 10여 개월 만에 다시 패배를 당했다.

2005년 3월 K-1에 데뷔한 최홍만의 통산 전적은 9승(3KO,2TKO)2패가 됐다.

지난해 K-1 8강까지 진출했던 맨너는 2년 연속 준준결승에 진출해 K-1 강호로서 입지를 확실히 굳혔다.



- 2일(월)
- ▲메이저리그(샌디에이고-애리조나) (09:00·Xports)
 - ▲대구농구협회장배 초등농구 결승(13:30·SBS스포츠)
 - ▲전국대학배구 연맹전(14:10·KBS1)
 - ▲프로야구(삼성-현대)(18:00·KBS SKY Sports), <두산-한화>(18:15·SBS스포츠), <현대-삼성>(18:30·MBC ESPN)

네 바퀴로 20억 번 어느 회사원 이야기

4인 1차선... 1인 2차선... 2인 1차선... 3인 1차선... 4인 1차선... 5인 1차선... 6인 1차선... 7인 1차선... 8인 1차선... 9인 1차선... 10인 1차선...

☎ 060-700-3658

TV홈쇼핑 고객평가 최우수제품!

유스 제트그립 트레킹화 1이 파격할인대잔치!

원가 27,000원 (71,000원) **35,500원**
 특가 23,000원 (59,000원) **31,500원**

43~44cm 신발 사이즈, 10월 10일까지, 전국 어디서든 구매 가능

구입문의 080-225-4040